

서프라이즈 가족

- * 글 : 김미희
- * 그림 : 노은주
- * 펴낸곳 : 단비어린이
- * 정가 : 12,000원
- * 분량 : 128쪽
- * 대상 : 초등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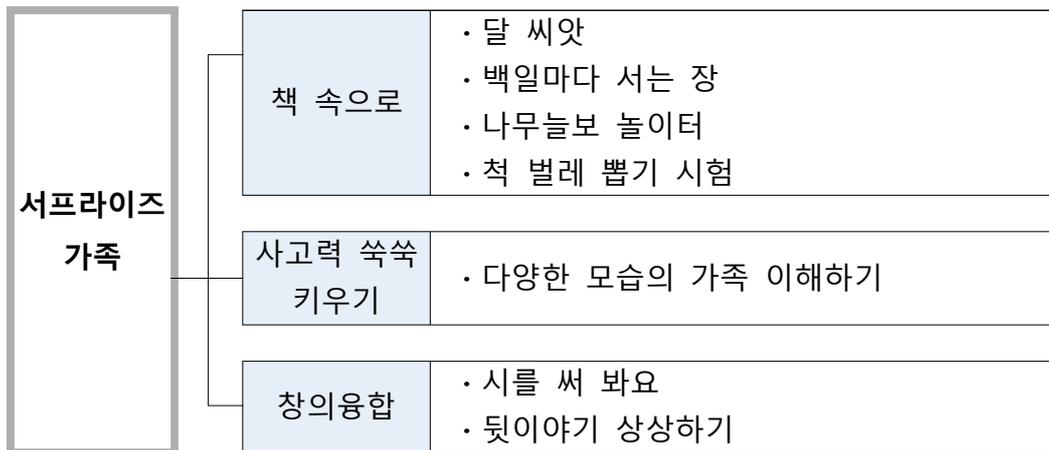
· 책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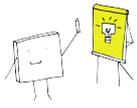
“우리는 모두 서프라이즈 가족입니다”

다양한 가족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행복 이야기

이 책에는 각각의 사연을 가진 다섯 가족이 등장합니다.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늑대와 아기 돼지 가족, 할아버지와 둘이 사는 찬이, 할머니와 둘이 사는 다희, 어릴 적 알콩달콩 함께 놀던 친구와 가족을 이룬 콩이, 벌레 학교 교장과 단 한 명의 신입생이 만든 가족. 가족을 이룬 이유와 형태는 다 다르지만 모두 저마다의 방식으로 행복을 만들어내고 있지요. 여러분의 가족은 어떤 인연으로 만들어졌나요? 또 어떤 행복을 만들어내고 있나요? 《서프라이즈 가족》을 통해 나와 같을 수도 혹은 다를 수도 있는 다양한 가족들의 모습을 만나고, 가족의 수만큼이나 다양한 행복도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되면 좋겠습니다.

· 주요 독후활동





독서 전

국어 교과_독서 단원 연계 책 미리 보기 : 표지

-책의 앞뒤 표지의 제목, 글귀, 그림을 살펴봅시다.

※ (1~2) 『서프라이즈 가족』의 책표지를 자세히 살펴봅시다.

1. ‘서프라이즈’는 ‘놀라움’이라는 뜻입니다. 책에는 어떤 가족 이야기가 나올까요? 표지의 그림을 보고, 상상해서 적어 보세요.

2. 표지의 9칸 만화에는 5편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누가 이야기에 함께 나오는 가족인 것 같나요? 짐작해서 짝을 지어 보세요.

※ (3~4) 『서프라이즈 가족』 뒤표지에 쓰여 있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늑대와 돼지가 가족이 될 수 있을까?

서로 쫓고 쫓기는 관계인 늑대와 돼지가 한집에 모였어요.

늑대 부부는 호시탐탐 아기 돼지를 잡아먹을 기회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아기 돼지가 사랑스러워 보였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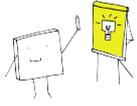
눈을 비비고 봐도 마찬가지로 보였어요.

과연 늑대 부부는 아기 돼지와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3. 아기 돼지를 처음 만났을 때와 시간이 지났을 때 늑대 부부의 마음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4. 나도 우리 가족이 사랑스러울 때가 있나요? 언제 그렇게 느끼나요?

5. 늑대 부부와 아기 돼지는 가족이 되었을까요? 상상해서 적어 보세요.



독서 후 어휘력 쑥쑥 키우기

※ 책에 나오는 어휘를 익혀봅시다. 다음 문장들을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 “우리 콩콩이는 언제 철이 들까요? ①천방지축 아무 데나 겁 없이 돌아다니고, 저러다가 큰일 날까 걱정이에요.”

• “너희 할아버지 ②허풍쟁이야.”

• 친구들이 생일잔치에 초대해 달라고 ③야단법석이에요.

• “여러분, ④주목해 주십시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장원을 발표하겠습니다.”

• 읍내 나온다고 몸빼 바지 대신 치마를 차려 입은 할머니가 ⑤허리춤을 잡아 올리며 무대에 꽃꽂이 섰다.

(나) 아빠 늑대가 쓰러지는 시늬를 했어요.

1. (가)의 밑줄 친 각 낱말은 어떤 뜻으로 쓰였을지 알맞은 뜻과 연결해보세요.

① 천방지축 • • ㉠ 일을 부풀려서 이야기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

② 허풍쟁이 • • ㉡ 못난 사람이 종작없이 덤벙이는 일

③ 야단법석 • • ㉢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핌. 또는 그 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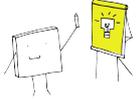
④ 주목 • • ㉣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 떠들썩하고 부산스럽게 굶

⑤ 허리춤 • • ㉤ 바지나 치마처럼 허리가 있는 옷의 허리 안쪽

2. (나)의 밑줄 친 낱말 ‘시늬’은 다음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어떤 모양이나 움직임을 흉내 내어 꾸미는 짓

이를 참고로, ‘시늬’을 넣어 문장을 지어 보세요.



독서 후 책 속으로_ ① 달 씨앗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밤에 공원을 지키는 할아버지는 공원 문이 닫히면 출근해요. 할아버지는 닭을 자리도 없는 작은 방을 걸레로 열심히 닦아요.

“씨앗을 가져가야 한다고?”

할아버지는 찬이의 말끝을 올려 그대로 따라 묻더니 더는 말이 없어요. 걸레가 달팽이 자국처럼 길을 만들어요.

“씨앗 사러 빨리 가요.”

“문구점에 파는 씨앗이 좋을까 모르겠구나.”

달팽이가 된 걸레가 책상 위까지 기어올랐어요. 혼자만 겨우 들어가는 집을 가진 달팽이는 집으로 친구들을 초대해서 생일잔치를 할 수 없겠네요. 달팽이들도 집으로 친구들을 초대해서 생일잔치 한번 해 보는 게 소원일 거예요.

(나) “자, 지금부터 이 할애비가 달 씨앗 심는 법을 알려 주마. 소원을 빌고 씨앗을 분수대 항아리에 잘 던져 심어야 한단다. 그래야 달 씨앗이 낮에 분수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지. 하지만 욕심쟁이들은 절대로 달 씨앗을 심으면 안 돼요. 자기가 심은 씨앗에서 난 달이라고, 자기 달이라고 가지려고 하면 안 되거든. 함께 보라고 하늘에다 심는 거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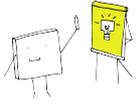
1. (가)에서 달팽이는 두 가지를 나타냅니다. 상자 안에 알맞은 답을 넣어 보세요.

지나간 길이 축축해지는 게 달팽이와 비슷하다.	집이 작아서 생일파티에 친구를 초대하지 못하는 모습이 달팽이와 닮았다.

2. 다음 관찰 일기에 달 씨앗에 관해 정리한 표를 채워 주세요.

심은 씨앗	달 씨앗
심는 방법	
주의 사항	
어떤 열매를 맺는지 그려 보세요.	

3. 나에게 달 씨앗이 생긴다면 나는 어떤 소원을 빌고 싶나요?



독서 후 책 속으로_ ② 백 일마다 서는 장

(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참 내 정신 좀 봐라. 식기 전에 묵자. 니, 내가 부쳐 주는 정구지전 묵고 싶어 우에 참았노? 서울 얘기, 아니 아라라 캬제? 이리 와 맛 좀 봐라.”

할머니가 큰 접시에 덮인 보자기를 건었다.

“나는 피자가 더 맛나다. 우리 아들이 퇴근하는 길에 읍내에서 사 오기로 했다. 그거 먹으면 배불러서 피자 못 먹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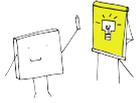
아라 할머니가 아라를 힐끗힐끗 보면서 말했다. 손가락을 오므렸다 폈다 하며 탄청을 피웠다. 네일아트라는 걸 했는지 손톱이 알록달록했다. 부추전 따위, 냄새도 맡기 싫다는 눈치다.

(나) “피잔가 빈대떡인가 그거만 묵는다 카드만?”

“아, 그때는 우리 아라가 있어서 그랬제. 우리 아라가 지 에미 잃고 날개 꺾인 독수리 맹크로 올매나 그러던지 내가 지 엄마로 살고 있다 아이가. 지 엄마처럼 매니큐어도 바르고 서울말도 쓰고 스카프도 하고. 서울서보다 짜릿골 와서 내가 제대로 욱본다. 그래도 걱정 마라. 우리 아라 점점 나아지고 있다. 쪼매 더 있으면 짜릿골에 정 붙지 않겠다. 그나저나 니 단디 빼졌었는갑네.”

1. (가)에서 아라 할머니는 다희 할머니가 부쳐 온 부추전을 먹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2. 다희가 되어 엄마를 잃고 할머니와 살게 된 아라에게 편지를 써 보세요.



독서 후 책 속으로_ ③ 나무늘보 놀이터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할머니, 꿀꺽괴물은 어떻게 생겼어요?”

“아주 무시무시하게 생겼지. 이만큼 커다랗단다. 우리 집보다도 클걸.”

할머니가 날개를 펴고 날면서 아주 커다란 동그라미를 그려 보였어요.

“꿀꺽괴물을 본 적 있어요?”

“꿀꺽괴물을 만났으면 여기 이렇게 있겠니? 벌써 잡아먹혔겠지.”

“그럼 그렇게 크다는 건 어떻게 알아요?”

“우리 엄마가 얘기해 줬으니까 알지.”

할머니도 어릴 때 잠을 잘 안 잤나 봐요. 그런 얘기를 들은 거 보면요.

“누가 잡아먹히는 건 봤어요?”

콩콩이가 거둬 물었어요.

“보진 않았지만 얘기를 들었지. 죽은 척하고 있다가 먹이가 나타나면 이때다 하고 잡아먹어 버린대.”

(나) “숲속에 몸집이 커다란 꿀꺽괴물이 산단다. 별명은 잠만보느림보야. 잠만보느림보는 잠자기, 꼼짝 않고 죽은 척하기를 가장 잘해. 그러니까 가만있기 선수지. 달리기도 못하고 숨바꼭질도 못하고 노래도 못하고 이야기를 나누지도 못해. 잠만보 안녕? 친구들이 인사하면 잠만보느림보도 인사를 해. 하지만 ‘안’ 한마디 하는 데 벌써 점심때가 되어 버려. 당연히 같이 놀 수도 없지. 아무도 놀아 주지 않아서 심심했어. 심심해서 잠만 잠만 자다가 잠만보가 되었고, 잠만 잠만 자니까 똥똥해졌고, 똥똥하니까 느림보가 되었고, 느림보니까 먹이를 잡을 수도 없었지. 하지만 먹는 건 잘해. 꿀꺽 꿀꺽…….”

1. 어른들은 아이들이 어떨 때 꿀꺽괴물 이야기를 했나요?
2. (가)와 (나)는 꿀꺽괴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야기 속 꿀꺽괴물은 전혀 다른 모습일까요? 또 (가)와 (나) 중 진짜 꿀꺽괴물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3. 여러분도 실제로 보지 못했지만, 이야기만 듣고 무서워하는 게 있나요? 있다면 무엇인가요? 왜 무서운가요?



독서 후 책 속으로_ ④ 척 벌레 뽑기 시험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가) 척척 씨는 실망스러웠어요. 들어올 학생이 없으면 건물만 덜렁 있고 청소부 다치워 씨와 달랑 둘만 학교에 있게 될 거예요. 힘이 쪽 빠졌어요.

“다음 들어오세요!”

뭔가가 데구루루 굴러왔어요. 몸을 나뭇잎에 가리지도 않았어요. 시험관들은 돋보기를 쓸 필요도 없었어요. 누가 봐도 틀림없는 번데기였으니까요.

“불합격!”

꼼꼼씨와 요리조리 씨는 기분이 나빠 외쳤어요. 모두 완벽하게 몸을 숨기고 나뭇잎인 척, 콩인 척, 눈알이 달린 척, 풀잎인 척, 척을 잘하는 벌레들이 속이려고 최선을 다하는데 맨몸을 드러내며 오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못해 화가 났어요.

(나) “아니, 저 저게 뭐죠?”

요리조리 씨가 눈을 덩그렇게 뜨고 손짓을 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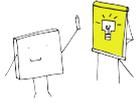
그동안 아무 말 않고 조용히 있던 번데기가 꿈틀꿈틀 몸을 비틀더니 더듬이가 나오고 이어서 몸통이 나왔어요. 몸을 부르르 떨더니 접힌 날개가 서서히 퍼졌어요.

“꼼꼼 씨, 잠깐만요. 아무래도 우리가…….”

요리조리 씨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버, 번데기가 아니었어. ()였네요.”

1. 벌레 학교에 입학하려면 어떤 시험을 봐야 하나요?
2. (가)에서 꼼꼼 씨와 요리조리 씨가 화난 이유는 무엇인가요?
3. ()에 들어갈 번데기의 정체는 무엇이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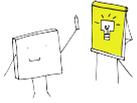


독서 후 사고력 쑥쑥 키우기

1. <달 씨앗>의 찬이 할아버지와 <백 일마다 서는 장>의 아라 할머니는 각각 사고로 엄마를 잃은 찬이와 아라를 돌보고 있습니다. 찬이 할아버지와 아라 할머니가 만난다면 두 사람은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요? 두 분의 대화를 상상해서 적어 보세요.

찬이 할아버지	
아라 할머니	
찬이 할아버지	
아라 할머니	
찬이 할아버지	
아라 할머니	

2. 세상에는 다양한 모습의 가족이 있습니다. 다양한 가족의 모습을 표지의 그림처럼 네모 칸 안에 그림으로 표현해 보세요.



독서 후 창의융합_ ① 시를 써 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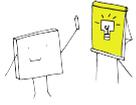
※ <백일마다 서는 장>에서 할머니는 '새'를 주제로 멋진 시를 씁니다. 여러분도 백일장에 나갔다고 생각하고, 같은 주제로 시를 한 편 완성해 보세요. 시를 쓰고, 시에 어울리는 멋진 그림도 그려 보세요.

새

세상에서 제일 큰 새는
먹새라예

저 너른 들판 곡식을
고 쪼매난 주둥이로
다 먹어치우는 먹새

세상에서 제일 이쁜
먹새 중의 먹새는
우리 정다희지예!



정답과 해설(예시 답안)

2쪽	<p>1. (예시 답안) ‘놀라운 가족’은 초능력을 사용하는 가족이 아닐까? 가족 모두 각자 다른 능력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 재밌을 것 같다.</p> <p>2. (예시 답안) 늑대와 돼지, 남자아이와 할아버지, 여자아이와 할머니가 짝공일 것 같다.</p> <p>3. 처음엔 잡아먹고 싶어 하다가 나중에는 사랑스러워 보였다.</p> <p>4. (예시 답안) 엄마, 아빠가 맛있는 걸 사 주실 때, 같이 놀러갔을 때, 나에게 사랑한다고 표현해 주실 때 사랑스럽다고 느낀다.</p> <p>5. (예시 답안) 가족이 되었을 것 같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p>
3쪽	<p>1. ①-㉠ / ②-㉡ / ③-㉢ / ④-㉣ / ⑤-㉤</p> <p>2. (예시 답안) 숙제하기 싫은데 엄마가 자꾸 시켜서 공부하는 시늉을 했다.</p>
4쪽	<p>1. 걸레 / 찬이</p> <p>2. 심는 방법 ⇨ 소원을 빌고, 씨앗(동전)을 분수대 항아리에 잘 던진다.</p> <p>주의 사항 ⇨ 욕심쟁이들은 절대로 심으면 안 된다.</p> <p>어떤 열매를 맺는지 그려 보세요. ⇨ (생략)</p> <p>3. 예시 답안)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나를 좋아하게 해 달라고 빌고 싶다.</p>
5쪽	<p>1. 예시 답안) 아라 엄마가 돌아가신 뒤에 아라 엄마인 척을 하느라 먹지 않았다.</p> <p>2. 예시 답안) 아라야, 너희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어. 많이 속상했겠다. 그래도 여전히 널 사랑하는 할머니와 아빠가 곁에 있으니까 힘내. 싸릿골에 이사 와서 힘든 점 있으면 나한테 말해. 내가 도와줄게. 그리고 내가 할머니와 살아 봐서 아는데, 할머니와 사는 것도 재밌어. -다희가</p>
6쪽	<p>1. 잠을 안 잘 때.</p> <p>2. (가)는 꿀꺽괴물을 직접 보지 못한 할머니가 한 말이고, (나)는 꿀꺽괴물을 직접 만난 룡룡이와 콩콩이의 이야기라서 다르다. 직접 보고 이야기한 (나)가 진짜 꿀꺽괴물의 모습이다.</p> <p>3. 예시 답안) 귀신. 실제로 보지는 못했지만 책이나 텔레비전에 나오는 모습이 생생해서 마치 본 것 같이 무섭다.</p>
7쪽	<p>1. 감쪽같이 속이는 시험을 봐야 한다. 2. 번데기가 아무 노력도 하지 않은 것 같아서. 3. 호랑나비</p>
8쪽	<p>1. 예시 답안) 찬이 할아버지: 사고로 엄마를 잃은 아이를 곁에서 보는 건 참 짝한 일이에요. 아라 할머니: 맞아요. 저라도 아라 엄마가 되어 주고 싶어서, 아라 엄마처럼 옷도 입고, 말도 하려고 하는데 어렵네요.</p> <p>찬이 할아버지: 노력하시는 모습에서 아라 할머니가 아라를 얼마나 사랑하는 지 알 것 같아요.</p> <p>아라 할머니: 찬이도 할아버지에게 사랑을 듬뿍 받아서 늘 밝아요.</p> <p>2. 가이드) 한부모 가족이나 입양 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모습을 찾아보고, 그림으로 그릴 수 있게 해 주세요.</p>

9쪽	<p>1. (가이드) 이 책을 쓴 김미희 선생님은 시인이기도 합니다. 선생님이 쓴 시를 한 편 알려 주고, 자유롭게 시를 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p> <p>꽃 김미희</p> <p>수줍게 핀 꽃이든 활짝 핀 꽃이든 들꽃이든 풀꽃이든</p> <p>피었다는 것은 선택받은 것입니다</p> <p>이 세상에 온 우리도 그렇습니다</p> <p>《오늘의 주인공에게》에 실린 시</p>
10쪽	<p>1.(가이드) 돼지 부부는 앞부분에만 등장하고, 뒤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등장인물의 미래를 추측하며 뒷이야기를 마음껏 상상해서 글로 표현할 수 있게 해 주세요.</p>